

충남도립대 학생들, 도시재생 아이디어 눈길… 지역 문제 해법 제시

✎ 윤양수 기자 | ☎ 승인 2026.06.20 | □ 11면

RUCAS 2026 발표회서 현안 분석·공간 대안 제안
아산시 신창면 일원 대상 맞춤형 방안 발굴 초점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3학년 도은성 학생- 지역대학연합설계(RUCAS) 발표사진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학생들이 지역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도시공간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충남도립대학교는 건축인테리어학과 학생들이 최근 열린 RUCAS 2026 최종 발표회에 참가해 아산시 신창면 일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공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RUCAS는 충남지역 대학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축설계 연합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실제 지역 현장을 분석하고 공간적 해법을 제시하는 현장 중심 교육 과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아산 신창 지역의 생활 환경과 도시 구조, 주민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한 뒤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 활용 방안을 도출했다. 단순히 건축물을 설계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변화와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도시재생 관점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은 수개월에 걸쳐 현장 답사와 자료조사, 팀별 토론을 진행했으며 건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설계안을 발전시켰다. 또한 워크숍과 해커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지역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구체화했다.



‘RUCAS2026 지역대학연합 도시혁신 공간설계 정책 아이디어 콘텐츠 기획사업’ 최종발표회 기념사진 촬영

이번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설계 능력뿐 아니라 문제 분석력과 협업 능력,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발표된 작품들은 향후 온양 아우름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대학 측은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지역 발전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승곤 앵커사업단장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공간적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천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립대학교는 앵커(ANCHOR)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경험을 통해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학·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